시온장로교회
Korean Zion Presbyterian Church

수요말씀묵상교재 (2020년 5월 6일)

진행순서 : 기도 ➔ 찬송 ➔ 성경봉독 ➔ 말씀묵상 ➔ 은혜묵상 ➔ 개인/ 합심기도 ➔ 주님기도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463장 (신, 400장), 464장(신, 406장)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4편 1~8절을 천천히 교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1. 다윗은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힘있어 보이는 자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고, 그들이 스스로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 거짓 신을 섬기며 살고 있는 것(2절)을 보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 보이는 것이며 그래서 힘들다고 울부짖습니다(1절). 기도 가운데 자기자신을 포함한 성도들을 격려하기를 경건한 자 (하나님께 헌신한 자) 곧,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돌보심(택하심)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고백합니다(3절).
  2. 그러므로, 악이 비록 강해 보여도 악과 더불어 범죄하지 말고, 잠자리에서 마음 깊이 반성하며(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눈물을 흘리라)고 권유합니다(4절). 동시에, 세상을 벗삼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의 제사를 드리고(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격려합니다(5절). 그러나, 다윗의 격려와는 반대로, 보편적인 사람들은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누가 우리에게 선(좋은 일)을 보일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습니다(6절). 왜냐하면 악이 눈에 보이게 기승을 부릴 때, 약자(소외된 자)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 다윗은 그 상황을 그대로 잘 반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길,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취소서"(6절)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 우리(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취신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햇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 크다고 고백합니다 (7절).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보이지않게 마음을 파고드는 자신감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시편을 마칩니다(8절).
  4. [논어] 「자한(子罕)」 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은 "子曰, 三軍可奪帥也, 匹夫不可奪志也" (자왈, 삼군가탈수야 필부불가탈지야)입니다. "삼군(三軍)(큰 나라)으로부터 그 장수를 빼앗을 수는 있어도, 필부(평민)로부터 그 뜻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말로서, 눈에 보이는 장수는 잃어도 보이지 않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비록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면**,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16:22/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그 누구도 그 기쁨(소망, 위로, 격려, 자신감 등등)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 은혜 묵상
  1. 코로나19와 개인과 가정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마치, 하나님보다더 커보이고 무서워보이고 강해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잠시 깊이 있게 생각해 봅시다. 나눌 수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그러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셔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 기도하기 – 묵상한 내용을 살피면서, 천천히 기도하신 후, 주님기도로 묵상을 마칩니다.